

# 휘독 古 367-434

徽牘 / 蔡濟恭 等 著 / 筆寫本 / [18-19世紀]

조선 후기 문신인 강세황(姜世晃, 1713-1791), 채제공(蔡濟恭, 1720-1799) 등의 편지를 모은 편지첩이다.

서명의 휘독은 '편지를 묶었다'라는 뜻이다. '휘(徽)' 자에는 묶는다는 뜻 외에도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편지를 받고 모은이에게는 '아름답고 소중한 편지'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 유명 문인들의 친필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아주잡록 古 3649-413

鵞洲雜錄 / 洪重寅(朝鮮) 著 / 筆寫本 / [發行年不明]

조선 후기 문신 홍중인(洪重寅, ?-1752)이 임진왜란 이후의 정치상황과 전기(傳記) 등을 여러 책에서 발췌하여 편찬한 책이다. 홍중인은 남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남인의 문집(文集) 등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여진다. 남인의 관점에서 편찬된 당쟁관계 문헌으로 남인, 당쟁 관련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아주록(鵞洲錄)』, 『경신일록(庚申日錄)』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과지 古文 2102.6-287

科紙 / [受發給者不明] / 筆寫本 / [純祖 1(1801)]

순조의 즉위를 기념하여 치뤄진 증광시(增廣試)에 작성된 과거시험 답안지로 부(賦)의 제목은 '야간연좌실중유광(夜間燕坐室中有光)'이다.

본래 과지의 맨 앞에는 응시자의 성명과 본관, 거주지 그리고 부친·조부·증조부·외조부의 관직과 성명, 본관을 쓰고 관원들이 응시자의 이름을 볼 수 없도록 따라 잘라두고 채점이 끝나면 따로 보관한 응시자의 정보를 합격자에 한하여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안타깝게도 본 과지의 해당 부분이 유실되어 응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죽간 古文 2102.9-1930

竹簡 / [花山 書] / 木製 / [發行年不明]

36.6 x 3.0 cm 크기의 죽간으로 옛 사람들이 독서할 때에 책을 넘기거나 책 사이에 끼워 사용하던 물건으로 추정된다.

앞면에 ‘수명우죽서계어간(垂名于竹書戒於簡)’ 뒷면에는 ‘화산고장(花山古藏)’이라 음각하고 빨간 염료를 채워넣어 글자를 잘 보이도록 하였다. 작자가 곁에 두고 좌우명처럼 여기고 사용한 물건으로 보여진다.

# 팔도지도 古 2702-92

[八道地圖] / 筆寫本 / [發行年不明]

전국 8도의 수진본(袖珍本) 도별지도첩이다.

수진본은 옷소매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책을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1) 수록 도별지도의 모양 위에 서울-고을 및 인근 고을과의 거리 정보를 추가하였고, 여백에는 도별 호수(戶數)와 역사 등 간략한 지지(地誌) 정보를 기록하였다. 1800~182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임대아문재청속서고금석문자 古 445-35

林大雅文哉清屬書古金石文字/ 吳世昌[1864-1953] 作 / 筆寫本

위창(葦滄) 오세창(1864-1953)이 77세 때인 1940년 가을에 만든 작품으로  
금석문에 나타나는 그릇, 칼, 기와 등의 문양과 문자를 그린 것이다.

오세창은 한말의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언론인이었으며 대한서화협회  
(大韓書畫協會)를 창립하여 우리나라 서화 발전에 힘썼다. 전서(篆書)와  
예서(隸書) 등 서예와 서화(書畵) 감식에도 뛰어났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간첩 古 367-441

[簡帖] / 宋時烈(朝鮮) 等書 / 筆寫本 / [發行年不明]

조선 후기 서인의 간찰 15편을 모아 만든 간찰첩이다. 수록된 사람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비롯하여 그의 문인인 송준길(宋浚吉), 권상하(權尙夏), 이단상(李端相), 김창협(金昌協) 등 서인(西人)이 대부분이고, 마지막 한 통은 남인의 영수였던 미수 허목(許穆, 1595-1682)의 편지가 수록되었다. 본 간첩은 당시 교유하던 송시열의 문인들 간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서인 연구 자료로 가치가 높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열성어필 古 4460-49

列聖御筆 / 太祖(朝鮮) 等書 / 木板本 / [英祖 1(1725) 內賜]

역대 조선 왕들의 글씨를 모아 만든 책이다.

태조(太祖), 문종(文宗), 세조(世祖), 성종(成宗), 인종(仁宗), 명종(明宗), 선조(宣祖), 원종(元宗), 효종(孝宗), 현종(顯宗), 숙종(肅宗), 경종(景宗)의 어필이 수록되어 있다. 내사기를 통해 영조 1년(1725) 10月 11日이전에 편찬했음을 알 수 있으며, 선사지기(宣賜之記)의 인장이 있다.



# 기려명산 古 4565-65

騎驢名山 / 趙熙龍[1789-1866] 作 / 筆寫本 / [發行年不明]

조선후기 화가 조희룡(趙熙龍)의 작품이다.

서명의 '기려명산(騎驢名山)'은 '나귀를 타고 산으로 간다'는 뜻으로 그림 하단에 나귀를 탄 사람이 다리를 건너 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화가 조희룡은 추사의 제자 중 한명으로 청나라 옹방강(翁方綱, 1733-1818) 등 당대 최고 서화가들과 교유했던 추사를 통해 그림 뿐 아니라 박학다식한 서화관을 갖추었다고 전해진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상례비요 古 5213-242

喪禮備要. 卷上, 下 / 申義慶 著 / 木板本 / 光海君 13(1621)

조선 중기 예학자인 신의경(申義慶)이 주자(朱子, 1130-1200)의 『가례(家禮)』 중에 상례(喪禮)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 문헌을 참고로 하여 정리한 책이다. 서문과 발문을 통해 광해군 1621년에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상례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 밀양박씨족보 古 2518-25-462

密陽朴氏族譜. 卷1-10 / 朴秀夏 著 / 木活字本 / 大正 13(1924)

1924년 대구 경직당(景直堂)에서 발간한 밀양박씨족보로 총 10권10책으로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밀양박씨는 경상남도 밀양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 박씨 인구의 80% 정도를 차지하며 국내 본관별 인구수로도 김해김씨 다음으로 많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가장 오래된 밀양박씨 족보로는 1662년 간행된 밀양박씨족보(密陽朴氏族譜: 糾正公派 / 古2518-25-362)가 있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동몽선습 古 5409-33

童蒙先習 / [朴世茂 著] / 木板本 / 1919

조선 전기의 학자 박세무(朴世茂, 1487-1554)가 저술한 아동 교육서이다. 서명 '동몽선습'에서 "아이의 무지함을 (깨우치기)위해 먼저 익히게 한다"는 저자의 저술목적 알 수 있다.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의 오륜을 설명하고 뒤에 중국과 조선의 역사를 간추려 놓았다. 『동몽선습』은 『천자문』, 『소학』 등과 함께 서당의 필수 교재로 사용되었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주역언해 古 1231-196

周易諺解. 卷1-9 / 宣祖(朝鮮) 命編 / 木板本 / [發行年不明]

삼경(三經) 중에 하나인 『주역(周易)』에 한글 음을 달고 뜻을 풀이한 책으로 1606년(선조 39)에 초간본이 발행되었다.

『주역언해』도 다른 언해본과 같이 여러 차례 걸쳐 간행되어 국어의 변천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 대학집주장구대전 古 1238-167

(原本備旨)大學集註章句大全 / 筆寫本 / [發行年不明]

『대학』은 유학의 경전인 사서(四書: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중에 하나로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선비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였다.

서명의 ‘원본비지(原本備旨)’는 원본으로 뜻이 잘 갖추어졌고 ‘대학집주(大學集註)’는 『대학(大學)』의 여러 해설을 모았다는 뜻이다. 본서는 1758년에 쓴 영조(英祖)의 어제서문(御製序文)과 1189년에 주희(朱熹)가 쓴 서문이 모두 필사되어 있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준호구 古文 2102.3-2713

準戶口 / 權亨壽 受取; 楊州牧使 發給 / 筆寫本 / 正祖 13(1789)

권형수(權亨壽)가 정조 13년인 1789년에 양주목(楊州牧)에서 발급받은 준호구이다.

준호구(準戶口)는조선시대 호적자료 중 하나로 호주(戶主)가 신청하면 관에서 호적대장과 대조하여 발급하는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의 인장을 통해 발급한 문서의 내용에 수정하거나 개정한 부분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 호구단자 古文 2102.3-2701

戶口單子 / 漢城府尹受取; 權在春 發給 / 筆寫本 / 高宗 31(1894)

1894년에 권재춘(權在春)이 작성하여 한성부에 제출한 갑오식(甲午式) 호구단자이다.

조선은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자(子)·묘(卯)·오(午)·유(酉)로 끝나는 식년) 호적을 작성하였다. 호주가 작성해 관에 제출하면 이전의 호적과 대조, 확인 또는 정정하여 한 부는 관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관의 확인을 표시하여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호주는 돌려받은 호구단자를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맹자언해 古 1239-284

孟子諺解. 卷3-4, 9-12 / 宣祖(朝鮮) 命編 / 木板本 / [發行年不明]

송나라 주희(朱熹)의 『맹자집주(孟子集注)』를 바탕으로 원문 각 글자 아래 음을 달고 문구 사이에 토(吐)를 달아 풀이한 것이다.

『맹자』 전체 7편이 상하로 나누어 총 14편이 되어 14권 7책으로 구성하였다. 『맹자언해』도 다른 언해본과 같이 조선시대 수차례 간행되었으며, 본 서는 6권3책의 결질본으로 간기가 없어 정확한 발행시기를 알 수 없다.

# 음력절후표 古文 2102.9-1931

陰曆節候表 / [受發給者不明] / 筆寫本 / 昭和 4(1929)

소화 4년인 1929년에 작성된 음력절후표이다.

상단부에 각 달에 해당하는 간지(干支)인 월건을 기록하고 하단부에는 그 해의 운세를 점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 작성자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 척암선생문집 古 3648-10-950

拓菴先生文集. 卷13-14, 27-28 / 金道和(朝鮮) 著 / 木板本 / [發行年不明]

척암(拓菴) 김도화(金道和, 1825-1912)의 문집이다.

김도화의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안동에서 태어나 조선 말기의 학자이자 의병장으로 활동 하였다. 본서는 권13-14, 27-28만 있는 영본(零本)으로 1917년 김도화의 손자 김헌주(金獻周) 등이 편집·간행한 책의 일부로 보인다.

# 호고와선생문집 古 3648-59-174

好古窩先生文集. 卷4, 5, 14-17 / 柳徽文(朝鮮) 著 / 木板本 / [發行年不明]

호고와(好古窩) 유희문(柳徽文, 1773-1827)의 문집으로 본 서는 권4, 5, 14-17만 남은 영본(零本)이다. 유희문의 본관은 전주(全州), 아버지는 통덕랑 유만휴(柳萬休)이며 평생을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호고와문집의 원집은 1898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권1~2는 시(詩)가, 권3~9의 학문적 질의·응답의 서(書)로 구성된다. 권10~17은 잡저로 경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이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효경대의 古 1236-48

孝經大義 / 童鼎(元) 註解; 徐貫(明) 撰 / 筆寫本 / [發行年不明]

『효경대의(孝經代議)』는 원나라 동정(童鼎)이 주해한 것을 명나라 서관(徐貫)이 간행한 책이다. 『효경(孝經)』은 『효경대의(孝經代議)』, 『효경언해(孝經諺解)』, 『효경간오(孝經刊誤)』 등으로 불린다. 본 효경대의는 필사본으로 '甲申十月初六日 是乃錫兒初度日也 家君命余謄出孝經以拾故不敢違命余乃書贈 江原道橫城郡'이라 묵서된 것을 통해 아버지의 명에 따라 효경을 베껴 써 강원도 횡성군으로 보내었음을 알 수 있다.

# 초계정씨세계 古 2518-70-247

草溪鄭氏世系: 文簡公第二子一葉靑派 / 筆寫本 / [發行年不明]

초계정씨 문간공 차자(次子)의 파보로 필사본 1책이다.

문간공(文簡公)은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이며, 그의 차자인 정창훈(鄭昌訓)의 가계이다. 전체 14장 가운데 10장에만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파인실기 古 2511-72-24

坡仁實紀. 卷1-3 / 趙宗欽, 趙喆衡 共編 / 木活字本 / 1921

파인실기 혹은 파인양선조실기(坡仁兩先祖實紀)는 파서(坡西) 조순생(趙順生, ?-1454)과 그 아들 인촌(仁村) 조명(趙銘)이 남긴 기록을 모아 1921년 목활자본 으로 발간한 책이다. '歲在辛酉(1921) 仲冬新刊'이라는 간기를 통해 1921년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부안임씨세보 古 2518-64-97

扶安林氏世譜. 卷2, 8-9 / 木活字本 / [發行年不明]

목활자본으로 간행한 부안임씨 족보로 권2, 8-9의 3권 2책 낙질본이다. 부안임씨는 임계미를 시조로 하고, 부안을 관향으로 하는 전라북도 부안군의 세거 성씨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중 가장 오래된 부안임씨족보는 현종 15(1674)에 목활자본으로 간행한 부안임씨세보(古2518-64-54)이다.



# 칙명 古文 2102.2-1932

勅命 / 林魯珪 受取; 高宗 發給 / 筆寫本 / 光武 6(1902)

임노규(林魯珪, ?-?)가 광무 6년(1902)에 고종에게 발급받은 칙명이다.  
칙명은 대한제국기에 황제가 관료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칙명지보(勅命之寶)'의 인장이 있다.

# 춘추집주 목판 古 474-5

春秋集註[木板]. 卷2의 第45-46張 / 木板 / [發行年不明]

조선 후기 학자인 이유장(李惟樟, 1625-1701)이 편찬한 『춘추집주』를 간행하기 위해 만든 책판(冊版)으로 권2의 45-46장에 해당한다.

『춘추집주』는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242년간의 정사를 기록한 역사서이자 유교 경전인 『춘추』의 여러 전(傳: 좌씨전, 공양전, 곡량전)과 해석서들의 내용을 간추려 편찬한 책이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묵매도 古 4565-27

[墨梅圖] / 宋修勉(朝鮮) 畫 / 筆寫本 / [發行年不明]

송수면이 그린 매화그림으로 가지는 위로 균형있게 뻗어 조화로움과 안정감을 주고 있다. 우측 상단에 화제(畫題)와 낙관 '송수면(宋修勉)'이 날인되어있다. 화가 송수면(宋修勉, 1847-1916)의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안여(顔汝), 호는 사호(沙湖)이다. 만년에는 노호(老湖)라 하기도 하였으며 전라남도 화순 동복(同福)에 은거하여 살았다. 호남 지방에서 일생을 서화가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산수화와 묵죽도, 매화도 등 많은 작품을 남긴 예술가이다. 나비 그림으로도 유명하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묵죽도 古 4565-33

[墨竹圖] / 宋修勉(朝鮮) 畫 / 筆寫本 / [發行年不明]

송수면의 대나무 그림이다.

근세 서화가 오세창(吳世昌)은 역대 서화가의 사적과 평전을 수록한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에서 '송수면은 대나무를 잘 그렸다'라고 평할 만큼 송수면의 대나무 그림은 매력적이다. 그림 하단에 여러 괴석을 세우고 사이로 대나무가 뻗어 나왔다. 대나무의 줄기는 중간중간 꺾여 방향을 틀고, 큰 나무를 뒤로 비스듬히 자란 작은 가지 하나가 연한 먹으로 처리되어 원근감이 살아난다. 상단 중앙에 화제(畫題)와 낙관 '사호(沙湖)'가 날인 되어있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수묵사군자 古 4565-58

[水墨四君子(4幅 屏風)] : 墨梅, 墨蘭, 墨菊, 墨竹 / 梅湖居士 作 / 筆寫本 / [發行年不明]

사군자(四君子)를 그린 4폭 병풍이다.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네 가지의 식물을 가리키며, 동양에서는 학식과 인품, 덕이 높은 사람에 비유하여 '군자'라 불렀는데, 네 가지 식물이 높은 기상과 품격을 지녔기 때문에 사군자라고 불렀다. 때문에 선조들은 오랜기간 사군자로 시와 그림을 즐겼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석란도 古 4565-48

[石蘭圖] / 李方子(1901-1989) 作 / 筆寫本 / [發行年不明]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垕)의 부인인 이방자(李方子, 1901-1989)의 석란도이다.

자신의 재능인 서예, 그림, 칠보 등의 작품활동을 하였고, 전시회를 통해 생긴 수익금을 모두 장애인을 위해 쓸 정도로 장애인 교육과 지원에 힘을 쏟아 존경 받았다. 본 그림은 바위에 핀 꽃을 그린 석란도로 이방자의 호인 ‘가혜(佳惠)’와 인장 ‘이방자인(李方子印)’이 날인되어있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용학장구 古 1238-171

庸學章句 / 筆寫本 / [發行年不明]

사서(四書)에 해당되는 『중용(中庸)』·『대학(大學)』을 함께 필사하여 만든 책이다. 『중용』 9장, 『대학』 6장으로 소장자의 것으로 보이는 ‘금추(錦推), 박의(?)인(朴義(?)印)’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중용』과 『대학』은 『예기』에 한 편이었으나 후대에 독립되어 출판되었고 유학에서 추구하는 자기 수양의 근거와 방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회갑기념록 : 물목 古 5215-2

[回甲紀念錄]: [物目] / 筆寫本 / [發行年不明]

자신을 비롯하여 선인(先人), 선비(先妣)의 회갑(回甲)과 결혼 등 집안의 여러 예식을 기념하여 받은 물목(物件)과 성명을 기록한 목록이다.

선물한 것들의 목록을 보면 흰떡이나 인절미, 생선, 계란, 산자, 밤과 같은 식품류에서 현금 그리고 살아있는 닭이나 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알 수 있어 당시 사회상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자료이다. 안타깝게도 필사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



# 평해군지도 古 2784-5

平海郡地圖 / 筆寫本 / [發行年不明]

평해군의 읍지로 평해군은 현재 경상북도 울진지역의 옛 지명이나, 당시에는 강원도 평해군이었다.

읍지는 지방 각 읍을 단위로 하여 작성되어 '읍지'라 불리며 각 지방의 역사와 인구, 교통, 환경이 총 망라된 지역의 종합 자료집이다. 책의 끝에 ‘평해읍삼달리오사사이상엽(平海邑三達里五四四李相燁)’의 필사기가 있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경주이씨가보 古 2518-62-738

慶州李氏家譜: 蘇判公派二十五世雲 / 筆寫本 / [發行年不明]

필사본 경주이씨 족보로 소판공(蘇判公) 25세 운(雲)에서 41세 재동(在東)까지 수록되었다.

경주이씨는 경상북도 경주시를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로 오랜 역사를 가졌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중 경주이씨족보로 가장 오래된 것은 숙종 10년(1684)에 간행한 경주이씨족보(古2518-62-556)이다.

# 교지 古文 2102.2-1934

教旨 / 李馨久 受取 ; 純祖 發給 / 筆寫本 / 純祖 14(1814)

순조 14년(1814) 1월에 이형구를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용양위호군(龍驤衛護軍)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다.

# 호구단자 古文 2102.3-2741

戶口單子 / 平海郡守 受取 ; 李聖植 發給 / 筆寫本 / 憲宗 15(1849)

헌종 15년(1849)에 강원도(江原道) 해평군(平海郡) 상달면(上達面)에 사는 이성식(李聖植, 당시 59세)이 작성하여 해평군수에게 제출한 호구단자로 상단부분이 훼손되었다.

조선은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였는데, 호주가 작성해 관에 제출하면 이전의 호적과 대조, 확인 또는 정정하여 한 부는 관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관의 확인을 표시하여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절용방 古 031-122

切用方 / 木板本 / [發行年不明]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비롯하여 제사나 잔치에 상을 차리는 방법을 설명한 진설도(陳設圖), 고간지(古干支), 길흉(吉凶) 등이 정리된 책으로 목판본으로 발행되었다. ‘己卯(?)初夏重刊’의 간기가 있으나,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 흥덕삼강록 古 155-102

興德三綱錄. 卷1-3 / 白樂炫(朝鮮) 等編 / 木活字本 / 高宗 40(1903)

1903년 전북 고창의 흥성향교[興德鄉校]에서 간행한 삼강록이다.

조선 후기에는 지방 군읍에서 그 고을의 삼강록을 자체적으로 간행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이다. 삼강록은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백성을 교화할 위한 목적으로 편찬하였다. 본서의 발행처인 흥덕향교는 1406년(태종 6)에 창건되어 현유(賢儒)의 위패를 모시고 고창지역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 하체 古文 2102.1-2844

下帖 / 郡守 受取; 執綱 發給 / 筆寫本 / [發行年不明]

기미년 3월 초5일에 군수가 서부면(西部面) 집강(執綱 : 면, 리의 행정 사무 담당자)에게 보낸 하체이다. 군수는 용흥리(龍興里) 효자 두 형제 이영렬(李永烈, 11세), 이영기(李永基, 8세)를 관아로 보내어 그 효성이 다른 사람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서에는 관인 11과가 찍혀있다. 하체는 원래 관아에서 일꾼이나 상인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줄 때 작성해 주었던 문서를 말하나 수령이 향약 집강 혹은 향교 재임 등에게 훈유하거나 지시를 내릴 때도 사용되었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이선생예설류편 古 1234-165

李先生禮說類編. 卷1-2 / 李滉(朝鮮) 著 ; 李瀼(朝鮮) 註釋 / 筆寫本 / [發行年不明]

『이선생예설류편』은 보통 '예설유편'으로 불리며, 저자 성호(星湖) 이익(李瀼, 1681-1763)의 호를 따 '성호예설유편', '이선생예설유편'으로 불리기도 한다. 저자 이익은 여러 학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예설에 관한 것을 골라 『가례』의 편목에 맞추어 배열하고 다시 고증하여 풀이 하였다.



# 밀성박씨족보 古 2518-25-466

密城朴氏族譜 / 朴思默(朝鮮) 等編 / 木活字本 / 純祖 6(1806) 新序

경상남도 밀양의 세거 성씨인 밀성[밀양(密陽)]박씨의 족보이다.

1책의 목활자본으로 병인(1806)년에 작성한 서문과 발문이 있어 1806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시조 박언침(朴彦忱)은 신라 박혁거세(朴赫居世)의 29세손인 경명왕(景明王)의 맏아들로 박언침이 밀성대군(密城大君)에 봉해져 밀성을 본관으로 삼아, 밀성 혹은 밀양박씨(密陽朴氏)로 부른다.

# 협계태씨족보 古 2518-86-7

陝溪太氏族譜. 卷1-2 / 木活字本 / 哲宗 7(1856) 序

철종 7년인 1856년에 목활자로 간행된 협계태씨 족보이다.

협계태씨(陝溪太氏)는 황해북도 신계군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 시조 태집성(太集成)은 진국(震國)의 개국조(開國祖)인 대중상(大仲象)의 18세손으로 성씨가 대에서 태로 바뀐 것은 여러 설이 있다고 전해진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태씨 족보 중에 가장 오래된 족보이다.

# 월사선생집변무주 古 6022-264

月沙先生集辨誣奏 : 戊戌辨誣錄 / 李廷龜(朝鮮) 著 / 木板本(重刊) / 純祖 4(1804)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문집 중에서 「변무주문(辨誣奏文)」만을 뽑아 만든 책으로 인조 때 처음 간행되었고, 순조 4년인 1804년 산청(山淸) 지곡사(智谷寺)에서 중간(重刊)되었다.

1598년(선조 31) 명나라 병부주사(兵部主事) 정응태(丁應泰)가 조선이 왜군을 끌어들이 명나라를 침략하려고 한다고 무고하자 진주부사(陳奏副使)인 이정구가 「조선국변무주문(朝鮮國辨誣奏文)」을 지어 명나라에 가서 정응태가 무고하였음을 임금에게 올린 글이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교지 古文 2102.2-1938

教旨 / 太應和 受取 ; 英祖 發給 / 筆寫本 / 英祖 30(1754)

영조 30년인 1754년에 태응화(太應和)를 통정대부(通政大夫: 문신 정3품 상계(上階)의 품계명)에 임명한다는 영조로부터 받은 교지(教旨: 임명장) 이다. 조선 시대에 책봉이나 벼슬을 내릴 때 사용한 도장(圖章)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날인 되어 있다.

# 호남삼강록 古 2513-563

湖南三綱錄. 卷1-9 / 李謙臣 等編 / 木活字本 / 1903 序

호남지역의 충절(忠節)·효행(孝行)·열녀(烈女)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만든 일종의 교화서이다. 9권 8책의 석인본으로 편찬되었다. 이겸신(李謙臣) 등이 편집하였고 권두에 조한국(趙漢國)이 쓴 서문이 있다. 호남의 향토사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사문유취초 古 032-227

事文類聚抄. 卷1 / 木板本 / 正祖 23(1799)

중국 북송(北宋)의 축목(祝穆)이 편찬한 백과사전 『사문유취(事文類聚)』를 간추려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다.

고금의 여러 서적들에 나오는 중요한 말과 역사적 사실, 시문(詩文)을 모아서 분류하였다. 본서는 1799년에 전이채, 박치유가 방각본으로 만들어 판매했던 책이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사기영선 古 2520-72

史記英選. 卷3-4 / 木板本 / [發行年不明]

정조가 중국 역사서인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와 반고(班固, 32-92)의 『한서(漢書)』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정조 20년인 1796년에 간행한 역사서이다. 이후에 6권 3책이나 8권 5책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본서는 권3-4(1책)만 남은 영본(零本)이다.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유산

## 간찰 古文 2102.8-5546

簡札 / [受取者不明] ; 閔鼎重(1628-1692) 發給 / 筆寫本 / 顯宗 14(1673)

1673년(현종 14) 12월 28일에 기복상(暮服喪) 중에 있는 민정중이 상대방에 각종 세의(歲儀: 한 해를 보내는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를 보내 준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는 편지이다.



# 간찰 古文 2102.8-5554

簡札 / [受取者不明] ; 朴世采(1631-1695) 發給 / 筆寫本

간지가 계(癸)로 시작하는 해 4월 18일에 박세채가 상대방이 보내 준 편지를 받고 쓴 답장으로, 종묘대례(宗廟大禮)에 대한 걱정, 이장(李丈)의 말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하였다.

# 간찰 古文 2102.8-5581

簡札 / 尹進士 受取 ; 宋浚吉(1606-1672) 發給 / 筆寫本

간지가 신(辛)으로 시작하는 해 5월 19일에 송준길이 윤길보(尹宣舉, 1610-1669, 吉甫는 자임)에게 쓴 답장이다.

편지 내용으로 보아 송준기가 만년에 쓴 것으로 추정되며, 조태(趙台)의 피출(被黜) 소식에 대한 마음을 전하였다. 편지 뒷면에 '吉甫 賢兄 狀上/尹進士 侍史'가 적혀있다.

## 간찰 古文 2102.8-5770

簡札 / [受取者不明] ; 權尙夏(1641-1721) 發給 / 筆寫本 / 肅宗 46(1720)

1720년(숙종 46) 8월 18일에 권상하가 상대방이 보낸 편지를 받고 쓴 답장으로, 자신이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병환으로 자리보전하고 있어서 부탁한 글에 대해 볼 여가가 없었다고 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였다.

## 위장 古文 2102.8-5822

慰狀 / 李直長 受取 ; 鄭述(1543-1620) 發給 / 筆寫本

1584년(선조 17) 2월 24일에 승의랑(承議郎) 전수(前守) 군자감(軍資監) 판관(判官) 정구가 이직장(李直長)에게 보낸 위장(慰狀)으로, 반듯한 해서로 작성되어 있다.

뜻밖의 선부군(先府君) 부의에 대한 놀라움과 애통한 마음을 전하고 이어 자신은 병환으로 위문을 가지 못한다고 전하였다. 편지 우측에 피봉도 함께 남아 있다. '狀上(우), 李直長 尊兄 大孝 哀次(좌)'가 적혀있다.